

인터넷 주소 한글화로 성공을 꿈꾼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찾고자 하는 영문 주소를 몰라 검색엔진에 찾는 기관이나 업체의 이름을 적어놓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직접 원하는 곳의 주소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의 번거로운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이런 네티즌의 어려움을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로 해결한 업체가 있어 찾아봤다.

〈글/박민식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정보시스템인 심마니를 찾으려면 'Http://simmany.chollian.net'을 쳐야한다. 하지만 정확한 영문주소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경우 'Http://7.co.kr/심마니'라 입력하면 심마니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박찬호 사이트는 'Http://7.co.kr/박찬호'로 입력하면 해당사이트로 곧바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서비스의 주인공은 웹티즌(대표 강희준)으로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립한 벤처기업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강사장을 비롯한 KAIST 출신 멤버가 주축이 된 웹티즌은 한글 인터넷 접속 서비스 나침반(Http://7.co.kr)과 전용 브라우저 나침반99를 상업화한 상태이다.

강사장은 "나침반은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검색 소프트웨어로 네티즌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사업성과 기술력 겸비

현재 나침반의 하루 이용자횟수는 4만 건을 기록하며 천리안을 비롯한 PC통신사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상태이다. 또한 과학기술부 주최 기술창업 아이템 대회에서 인터넷 분야 1위를 비롯해 숭실대학교 벤처창업 아이템 대회 금



강사장은 "나침반은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검색 소프트웨어로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웹티즌 직원들의 모습(뒷면 왼쪽에서 세번째가 강희준 사장)

상,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업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상업성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편 웹티즌은 한글접속 서비스 외에도 한글 도메인 할당 서비스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강사장은 "국내에서는 COM이나 NET과 같은 외국도메인을 얻기 위해 미국 기관에 도메인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웹티즌에서는 IP 어드레스만 있으면 무료로 한글 도메인을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기본원리는 URL의 한글화

강사장은 "나침반은 입력된 한글 키워드를 실제 URL로 변환해 주는 간단한 원리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기존 URL의 한글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웹티즌은

한국전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의 영문 사이트의 80% 이상을 한글화 한 상태이며, 새롭게 생겨나는 사이트는 검색엔진을 통한 결과물과 등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곧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사이트에 대해 한글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해외시장 및 인트라넷 시장 진출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 와 해외시장 진출과는 엔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웹티즌의 마케팅 담당 정주명씨는 "나침반의 원리를 외국시장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영문 URL을 일본어로 바꿔주고 서비스하면 한국에서와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웹티즌은 일본 및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기술협약이 들어오고 있어 해외진출이 곧 예상된다.

한편 웹티즌이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인트라넷용 웹브라우저 시장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 적합한 검색 엔진 및 DB를 제작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홈페이지에 나침반을 설치하고 삼성그룹내 홈페이지 URL이나 상품 및 정보 위치를 DB화 한 후 고객 및

사원이 삼성 그룹의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험 사이트로 SK텔레콤의 웹 서비스에

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한글 URL서비스인 나침반 홈페이지 화면

평균나이 23세, 가장 큰 문제(?)

현재 웹티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품 개발도 마케팅 활동도 아닌 나이가 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균나이 23세'를 S/W개발에 적합한 나이로 말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웹티즌 직원 모두가 군대를 가거나 병력특례 업체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강사장은 "현재 웹티즌은 병력특례업체 지정을 추진중이나 아직까지 업체 사장이 병역 특례를 받은 유례가 없으며 받는 다해도 특례 인원에 제한이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2/4분기 순익, 19억 8,000만 달러 달성

美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지난해 12월 31일 끝난 1999회계연도 2/4분기에서 총매출 49억 4,000만 달러와 순익 19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함께 주가 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하여 재정담당 총 책임자인 그레그 마페이이는 "윈도우 NT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해 윈도우 NT 서버, 서버 애플리케이션, 오피스 97 등의 수요가 폭 넓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는 부분적으로 2000년 문제와 관련된 수요 때문에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로 99년 기업들이 2000년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IT 예산을 축소할 경우 관련되지 않은 MS제품의 매출 부진이 예상됨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방한한 제프 레이크스 그룹부사장은 지난해 한국시장에 대해 "어느 아시아 지역보다 빠른 질적, 양적 성장을 했으며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며 일례로 "S/W산업 발전을 위해 IT 커뮤니티가 발족됐으며, 복잡한 S/W의 유통채널을 개선하기 위한 유통 단순화 작업이 1년여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SQL 서버 7.0은 지난해 전세계 53개국 4만5,000 고객에게 출시돼 '최우수 생산성 소프트웨어상'과 '컴덱스 최고 제품상' 등을 받았으며, 성장 속도 면에서도 경쟁 제품보다 약 2배 빠르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SQL 서버 7.0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